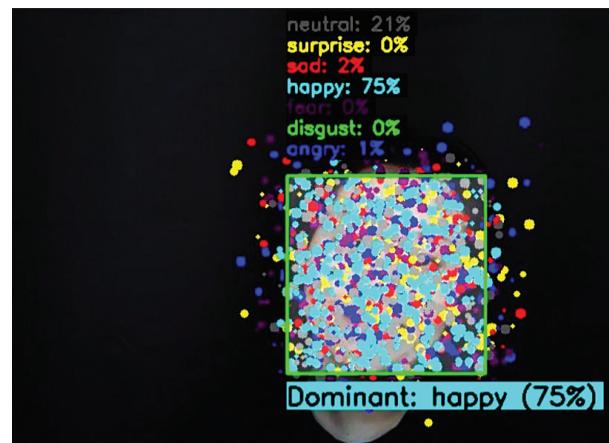


엄지효 작 '바르도'



삼김 작 '제의적 밸흐 스코어'



이유승 작 '감정의 순환'



딥오션랩 작 '공유된 환희'

## 청년 융복합예술가들의 도전과 실험의 장

융복합 예술 분야 실험을 견인하고 동시대 청년 예술가들의 도전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시는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주목해 '실험의 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 김하경, G.MAP.지珉)은 제1회 'G.MAP 뉴웨이브'를 펼친다.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3·4전시실, 미디어파사드 월. 오프닝은 오는 15일이며 퍼포먼스, DJ 레이브 공연, 아티스트 토크, 전자음악 워크숍 등이 예정돼 있다.

김 센터장은 "이번 뉴웨이브 전은 예술과 기술 융합을 주제로 저마다 예술을 실험적으로 전개해 온 동시대 청년 예술가들의 도전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청년 융복합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실험적 창제작 전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珉은 지난해 제1회 청년융합예술인 선정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모두 4인(팀)을 선정해 지원금, 작품·공모비를 지원하는 바 있다.

제1회 'G.MAP 뉴웨이브' 15일~3월 15일

퍼포먼스·DJ 레이브 공연·토크·워크숍 등  
예술과 기술 융합 주제 매년 공모전 개최

연구활동 홍보 단편 영상 제작, 전시, 홍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시는 매년 공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실험적인 창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일보는 청년융합예술인들의 실험 및 도전에 관심을 갖고 기사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최종 선정된 4인(팀)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들에게 전시장은 하나의 인터스페이스로 저마다의 방식에 따라 전시장을 가동한다.

먼저 엄지효 작가의 '바르도' (Bardo)는 불교를 모티브로

구현된 작품이다. '바르도'는 '틈새'라는 뜻으로 죽음과 환생의 가운데 지점을 일컫는다. 작가는 솟 품 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순환적 구조를 생의 반복이라는 윤회에 빗대 완성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바르도를 대입해, 미디어가 유도하는 비자발적 명상이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구조다. 생과 죽음에 대한 사유, 중간지점인 '바르도'가 관객에게 환기하는 의미를 사용하게 한다.

삼김의 '제의적 밸흐 스코어'는 관계적 과정을 재정의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오브제 설치, 미디어,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제의적 구조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다. 관람객은 신체를 비롯해 비인간, 기술, 데이터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생되는 과정을 저마다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관람객의 움직임 등은 미생물의 생장과 군집에 영향을 끼치며, 남겨진 행위 흔적은 공동의 리듬을 만든다.

감정 데이터를 모티브로 구현한 작품도 있다.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인 이유승의 '감정의 순환'은 인공지능이 감정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파생됐다. 작가의 접근 방식은 유연하다. 불완전한 데이터는 감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데이터를 창작의 질료로 삼았다. 칸디스키가 추상회화의 조형언어를 정립한 것처럼, 작가는 자신의 회화적 규칙으로 풀어낸다.

광주의 빛을 아카이빙한 딥오션랩의 '공유된 환희'는 공동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지역 청년 디제잉 커뮤니티 심해의 활동을 담았으며, 무엇보다 심해랩 공간을 전시장 안에 재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디제잉과 전자음악이 융합되는 현장은 역동적이면서도 퍼포먼스 시각화로 전이된다.

김하나 학예사는 "뉴웨이브 전시는 정보나 사전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체험을 토대로 감상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며 "전시장에 들어서는 관람객들은 체험과 생성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융복합 예술이 벌이는 생동감과 역동성, 변화 가능성 등을 다층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는다 '붉은 말, 시작의 불'

작가 10인 참여 ... 22일까지 은암미술관



신상호 작 '민화 말'

새해가 밝은지 2주가 지났지만 '붉은 말의 해'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여전히 새롭고 역동적이다. 역사 이래로 인간과 함께 온 말은 길을 열고 시간을 건너는 상징적 존재였다.

무엇보다 말은 '전진'을 함의한다. 새해 들어 헬트러진 계획이나 멈춘 도전이 있다면 다시 붉은 말(적토마)처럼 앞을 향해 내달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지난 12월 31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펼치는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느슨해진 다짐을 다잡게 하는 전시다. 붉은 말의 해가 함의하는 대로 '불', '속도', '생명력', '변화' 등을 키워드로 했다. 특히 새해의 첫장을 '말'을 주제로 펼쳐냄으로써 창조적 변화와 중단 없는 도전을 미술관이 한발 앞서 견인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채종기관장은 "붉은 말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오늘의 예술가들이 마주한 속도와 긴장,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사유의 움직임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새해 전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말의 형상과 에너지, 움직임의 흔적들이 관람객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결단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외 작가 10인이 참여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4점(유종우, 임만혁, 한선현, 신상호 작가)도 관객을 맞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작가로는 강일호를 비롯해 노정숙, 허달용, 허진 작가 등이 참여했다.

눈에 띄는 점은 '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봉고의 작가들도 있다. 인지오치르 남하이장찬, 바트수흐 소닌바이르 작품은 말을 매개로 지역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게 한다.

한편 한경숙 학예실장은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변화의 문턱에 선 동시대의 감각에 대한 응답"이라며 "멈춤과 가속, 재생과 소멸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예술은 우리는 어디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비유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가 밝은지 2주가 지났지만 '붉은 말의 해'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여전히 새롭고 역동적이다. 역사 이래로 인간과 함께 온 말은 길을 열고 시간을 건너는 상징적 존재였다.

무엇보다 말은 '전진'을 함의한다. 새해 들어 헬트러진 계획이나 멈춘 도전이 있다면 다시 붉은 말(적토마)처럼 앞을 향해 내달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지난 12월 31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펼치는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느슨해진 다짐을 다잡게 하는 전시다. 붉은 말의 해가 함의하는 대로 '불', '속도', '생명력', '변화' 등을 키워드로 했다. 특히 새해의 첫장을 '말'을 주제로 펼쳐냄으로써 창조적 변화와 중단 없는 도전을 미술관이 한발 앞서 견인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채종기관장은 "붉은 말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오늘의 예술가들이 마주한 속도와 긴장,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사유의 움직임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새해 전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말의 형상과 에너지, 움직임의 흔적들이 관람객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결단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외 작가 10인이 참여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4점(유종우, 임만혁, 한선현, 신상호 작가)도 관객을 맞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작가로는 강일호를 비롯해 노정숙, 허달용, 허진 작가 등이 참여했다.

눈에 띄는 점은 '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봉고의 작가들도 있다. 인지오치르 남하이장찬, 바트수흐 소닌바이르 작품은 말을 매개로 지역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게 한다.

한편 한경숙 학예실장은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변화의 문턱에 선 동시대의 감각에 대한 응답"이라며 "멈춤과 가속, 재생과 소멸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예술은 우리는 어디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비유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가 밝은지 2주가 지났지만 '붉은 말의 해'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여전히 새롭고 역동적이다. 역사 이래로 인간과 함께 온 말은 길을 열고 시간을 건너는 상징적 존재였다.

무엇보다 말은 '전진'을 함의한다. 새해 들어 헬트러진 계획이나 멈춘 도전이 있다면 다시 붉은 말(적토마)처럼 앞을 향해 내달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지난 12월 31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펼치는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느슨해진 다짐을 다잡게 하는 전시다. 붉은 말의 해가 함의하는 대로 '불', '속도', '생명력', '변화' 등을 키워드로 했다. 특히 새해의 첫장을 '말'을 주제로 펼쳐냄으로써 창조적 변화와 중단 없는 도전을 미술관이 한발 앞서 견인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채종기관장은 "붉은 말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오늘의 예술가들이 마주한 속도와 긴장,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사유의 움직임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새해 전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말의 형상과 에너지, 움직임의 흔적들이 관람객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결단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외 작가 10인이 참여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4점(유종우, 임만혁, 한선현, 신상호 작가)도 관객을 맞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작가로는 강일호를 비롯해 노정숙, 허달용, 허진 작가 등이 참여했다.

눈에 띄는 점은 '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봉고의 작가들도 있다. 인지오치르 남하이장찬, 바트수흐 소닌바이르 작품은 말을 매개로 지역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게 한다.

한편 한경숙 학예실장은 "붉은 말, 시작의 불'은 변화의 문턱에 선 동시대의 감각에 대한 응답"이라며 "멈춤과 가속, 재생과 소멸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예술은 우리는 어디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비유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웃음으로 보물을 훔쳐라...연극 '늘근도둑 이야기'

2월 20~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통령 취임 특사로 겨우 감옥에서 풀려난 두 늙은 도둑. 노후를 위한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한 부잣집에 숨어 든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곳은 '그분'의 미술관. 세계적인 명작들로 가득한 공간이지만 그 가치는 알 길 없는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금고만 들어온다.

경비견이 잡들기만을 기다리며 티격태격하던 사이 도둑들은 결국 현장에서 불잡혀 조사실로 끌려간다. 수사관은 사상적 배후와 보이지도 않는 '비후세력'을 집요하게 캐물고, 영문도 모른 채 몰린 두 도둑은 영동한 대답만 늘어놓으며 상황은 점점 더 우스꽝스럽게 흘러간다.

코미디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사진>)가 오는 2월 20일 오후 7시, 21일 오후 2·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주최·주관 극단 즐거운 사람들.

작품은 1989년 초연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학교 대표 시사 풍자극이다.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녹여낸 촌철살인의 대사와 거칠 없는 애드리브, 관객과 즉석에서 호흡



하는 유연한 연기가 어우러져 매 공연마다 다른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의 매력이다.

말솜씨로 판을 뒤흔드는 허풍쟁이 '털 늘근 도둑' 역에는 배우 박철민이, 도둑질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더 늘근 도둑' 역에는 배우 최재섭이 출연한다. S석 3만3000원·R석 5만5000원·VIP석 6만6000원, 예스24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

##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만에 종결...유족 최종 승소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법원(이하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 앤 촉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

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